

東國意志, 마나슬루頂上에서다



마나슬루봉이 東國人 발아래

頂上에서 「정상의 사나이」 徐東煥대원이 치켜든 太極旗는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힘차게 나부꼈다.

우리 東國人이 치켜든 太極旗는 어느때보단도 더욱 힘차게 나부꼈다.

마나슬루	대원
대	장
부	장
대	원
"	
"	
"	
"	
"	

화강암의 뼂身을
드러내었다.
東國山岳會「80동국마나율원전」
대」(대장)李仁禎의 관질기고도
집요한 도전과 「絲不亂 한 텁위」를
徐東煥대원을 頂上에 서게 한 순간,
B·C의 李仁禎대장도, 중간의 前

裸身드러낸 마구슬루봉

頂上정복 世界8번째…失墜된 國威설욕
한국알피니즘成長 척도된 單一팀 凱歌

國內대학 산악부종에서도
輪椅이 오래이고 또 그만큼 국내외에
등반을 통하여 설악이 다져진 東國의
山岳會의 이번 원정은 또 장비와
식량의 대부분을 국산으로 사용해
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.
東國山岳會는 이번 登頂을 거울
삼아 5년에 1번 씩이라도 네వ
랄라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카
라코룸이나 알프스의 针峰, 다른 대
륙의 高峰등을 개척해나갈 꿈을
부풀고 있다. 새로운

78m) 를 등첨한
둘다가 8천m 금에 못미치고, 또 에
베레스트 와 안나푸르나산봉의 대왕봉에
구성이 각기 대한 산악 맴과 산악 회의 복합체였음에 대왕봉에
산악 회의 비주어 고려 대의 매Kinley 와 이
령산 학회와 마나슬 만이 단일팀이었으니
번 나슬 만이 단일팀이었으니
결국 그들 매Kinley 의 두 단일팀에
비하면 거의 2천m 고도를 이번 만
나슬 터널 가 더 밀어 올려 부쳤다. 뿐
만 아니라 71~72~76년의 세차례에
결친 한국 대의 거듭된 실패를 깨
듯이 설욕, 단번에 힐끔 애서의 한
국의 명예를 회복한 절은 높이
가되고 있다.

4월 20일 李鍾先대원, 27일 徐대원
원등 두 차례나 登頂을 시도했으나
갑자기 날씨 변화로 모두 실패.
결국은 28일 徐대원이 비장한 각
으로 재시도한 6시간의 死闘끝에
울린 개가였다.

이번 壯勝로 한국은 日本 西獨
스페인 이란에 이어 마나 슬루에 등
정한 세계 5번째의 나라가 되었고
동반대에는 8번수가 된다.

○
單一 산악회 初有의래거

單一 산악회 初有의쾌거

東大同문 特별의사
동구한의원

칼라사진의 선구
사진예술원
부설 P-A 칼라 종합현상소

한국사신학원
증로2가 파고다아케이트 앞
TEL.(73) 3018 (74) 3018

대소연회석·주차장·완비
등설구·이불고기·냉면·국수·중전·도시락
부산회관

東大同문 特별의사
동구한의원

水 제 102회 법사원회를
예편과 동시에
여러 품종으로 관직에 발을 들여
여울았다.
河同門은 물론 국무총리실에 있으면서
행정실장·조사연구관 등 국사의 주요업무
를 담당해왔다.
油畫·서예가·취미인 河동문은 일요화
가회·한국寫生會등에서 활약하는 등書畫
술씨가 뛰어나기도.

慶熙大副총장으로 취임해
국가安保전문가로 후진育成



金基煥
<慶熙大副總長>

金基坤 (59史學) 동문이 慶熙大 廣智院
副總長으로 지난 4월 30일 취임했다.
金基坤은 62년 육군少將에 편, 곧 바로
慶熙大 교수로 부임하여 후진양성에 힘써
온 국가안보 전문가이기도 하다.
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장을 겸하고
있는 金基坤의 저서로는 「한국戰爭과 노동戰略」 등이 있으며, 「태극武功hon·美銀星호장」 등을 발행하고 있다.

法律 公證 업무를 共同 개시
둘다 법조계 잘 알려진 重鎮



韓沃申
<國會議員·辯護士>



黃石淵
<辯護士>

宋鍾辰 (76 經研) 동문이 光州高檢長에
就任되었다.
法務部研修院長으로 전임되었다.
51년 法曹界에 투신한 宋鍾辰은 61년
地檢부 장검사와 64년 地檢부 고검장검사·
72년 大檢察와 光州·淸州地檢長·大檢
총무부장·법무부교정관·장들을 차례로 지
냈다.

宋鍾辰 (76 經研) 동문이 光州高檢長에
就任되었다.
法務部研修院長으로 전임되었다.
51년 法曹界에 투신한 宋鍾辰은 61년
地檢부 장검사와 64년 地檢부 고검장검사·
72년 大檢察와 光州·淸州地檢長·大檢
총무부장·법무부교정관·장들을 차례로 지
냈다.

同門動

主月

<無順·敬稱略>
本人의 위임으로
近況諸소제본
提報입니다.

朴炳容 (59法學) 동문이 群山稅務署長
으로 전임했다.
朴炳容은 「코리아에서 왔습니다」 등
「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
제공해온 朴炳容은 「기자와 운전자의
운전면허증을 발급했으며 특히
운전면허증을 저작한 운전자는 그
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난한 운전자를 살
려고 개업의 면허증을 받았다.
첫 출판도서는 「나스·브란드워즈 (전
남석譯) 의 『三國誌 정차학』」이다.

趙正煥 (49 선문·남도 산업社会長·水原東
友會長) || 父親 허정호
金起東 (51國文·도교文理大교수) || 父
親 허정호

朴長圭 (61法學·南陽 진흥부사장) || 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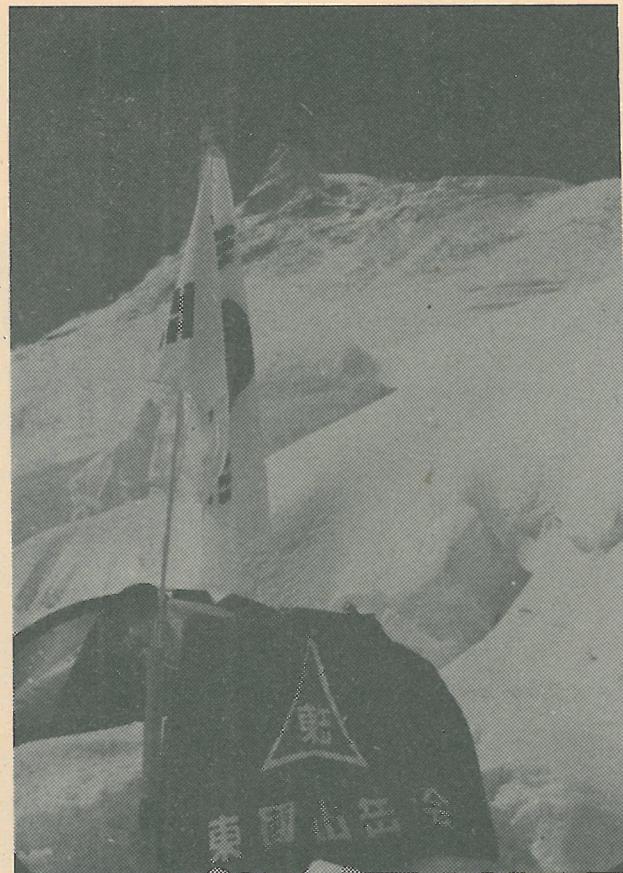
金相洙 (56史學·화가) || 母親 허정호

李春常 (66商學·화가) || 父親 허정호

李明彦 (66食工·서일공업전문대학교수) ||

崔光福 (67統計) || 교통사고로
죽어오고 있다.

崔光福 (67



◇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頂上

마나슬루頂上을 머리에 이고있는듯 가까와 보이지만 멀고 험한 시련은 계속되고있다. 캠프 4 (6,900m)에서의 太極旗와 東國山岳會旗가 한층 선명하여 크게 자랑스러운 것이다.



◇ 대한민국만세! 언제 또다시...

마나슬루정상정복을 마치고 베이스·캠프로 철수한 7명의 대원들. 먼발치에 흰눈에 덮힌 마나슬루봉이 보인다. 누가 언제 다시 저곳에 오를지는 모르지만, 개선대원들 스스로도 대견하기만하다.



◇ 포터들의 賃金도 계산
갑하나이다. 그날의 수많은 「포터」들의 산화를 털어내기 위해 품삯을 받고 30~40kg의 계산하는 것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1 천 원씩. 7~8일의 캐러밴은



大雪原에 펼친 인간曲藝의극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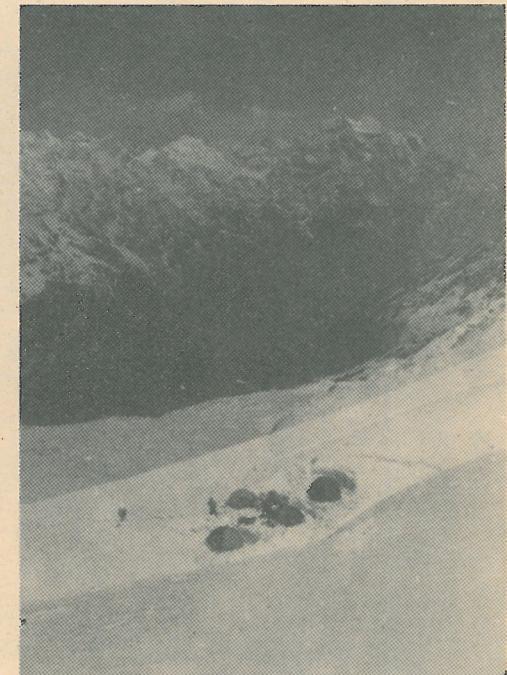
東國山岳人の 끈질긴 집념과 의지가 마침내 마나슬루登頂의 개개를 올렸다. 지난 71년 이후 韓國등반대에 3번식이나조절을 맛보게 한 非情의 마나슬루가 우리 東國人에 의해 그 神秘의 베일을 벗게 된 것이다. 그러나 7명의 대원들이 끝없는 大雪原에서 펼친 頂上에의 挑戰은 정작 공포와 스릴이 무수히 갈린 한편의

莊重한 드라마연출이었다. 아니 황량한 大雪原에 펼친 人間曲藝의 극장이라. 「頂上의 한순간」, 그것은 勇猛精進「東國」의 기상과 저력있는 民族의 魂魄이 더 없이 드높혀지는 광경이었다. 이는 東國 74년사에 길이 빛날 東國意志의 결집이었으며 한국등반사에 영원히 기록될 새로운 里程標이기도 했다.



◇ "수고했오... 祝賀파티 열어

네팔주재대사관저에서 베풀어진 登頂 축하리셉션에는 각국대사, 네팔국장관등 정부고위관리, 内外記者들이 대거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. 사진은 리셉션에서 (좌로부터) 본회 崔載九회장과 권태웅韓國대사, 로이타를신 엘리자벳·홀리女記者, 李仁楨대장(모자쓴이)이 활짝 웃으며 환담하는 모습。

◇ 적막감이 감도는 大雪原
캠프 3에서 내려다본 캠프 2. 1. 2차 한국등반대원들을, 잠재우고만 헛될힌곳이 바로 이 C3~C2사이. 그러나 6천미금 원색 막영지는 雪原의 꽃처럼 아름답기까지...

◇ 발걸음무겁지만 마음은 輕快
恶劣天候를 텁텁으로 극복하고 頂上의 기쁨을 맛볼수는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을이지만 마을은 운동 노동으로 빛한 C4~C3 사이, 비를 맞았지만 언제 둘째적인 노사태를 겪어야 하지만 높은 하늘길이란 마을을 찾았다. 또 높은 하늘길이란 마을을 찾았다. 또

